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해 태권도원을 찾은 방문객이 27만명을 돌파해 모객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태권도원 방문객 27만명 돌파

시범공연·체험·국립 태권도 박물관 기획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이하 재단)은 지난해 태권도원을 찾은 방문객이 27만명을 돌파해 모객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태권도원 방문객이 올해 목표였던 27만명을 돌파(270,040명)했다고 재단은 밝혔다.

이는 2014년 태권도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모객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지난 2년간(14년, 15년) 89%와 96%의 모객 목표치에 그친 것과 비교해 개원 3년차에 처음으로 모객 목표를 달성한데 큰 의미가 있다.

재단은 태권도원에서 상설 태권도 시범공연과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전시, 여름

물놀이 이벤트, 가족 캠프, 볼·가을 여행주간 특별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태권도의 진수를 느끼면서도 남녀노소 방문객이 부담없이 태권도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했으며 객실 점유율이 연 평균 50%를 넘는 등 안정된 운영을 했다.

특히, 전문경영인인 김성태 이사장((주)코르웰 대표이사)의 취임 2년차를 맞아 태권도원 발전과 모객목표 달성을 위해 태권도계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무주군과의 업무공조 및 상생협력에 최선을 다해 왔다.

그 결과, 개원 이래 처음으로 모객

목표를 달성하고 상징지구 조성 예산 전액을 확보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

재단은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 예산 확보를 통해, 올해 6월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찾을 전 세계 태권도인들과 관광객들에게 태권도 철학과 정신세계를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태권전과 명인관의 기틀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국격 향상과 태권도원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 용진서 얼굴없는 천사 선행 이어

20kg짜리 백미 30포대·편지 놓여져

매년 연말이면 완주군 용진읍 행정복지센터에 쌀을 기부해왔던 얼굴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선행을 이어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용진읍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이른 출근시간에 민원봉사실 앞에 20kg짜리 백미 30포대와 편지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편지에는 "손길이 자주 가지 않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훈훈한 연말이 됐으면 한다. 항상 발전하는 용진읍이 되길 기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익명의 독지기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로 9년째, 20kg백미 30포대를 기부해 훈훈한 정을 이어오고 있다. 그 양만 총 5,400kg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이런 얼굴없는 천사의 꾸준한 선행에 감동받아 용진읍 이장협의회가 직접 나서 쌀을 재배하고 수확해 지역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등 나눔에 동참, 더욱 의미가 남다른 한해였다.

기부된 쌀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등 지역내 어려운 이웃 30세대를 선정, 기부자가 보내준 사랑 그대로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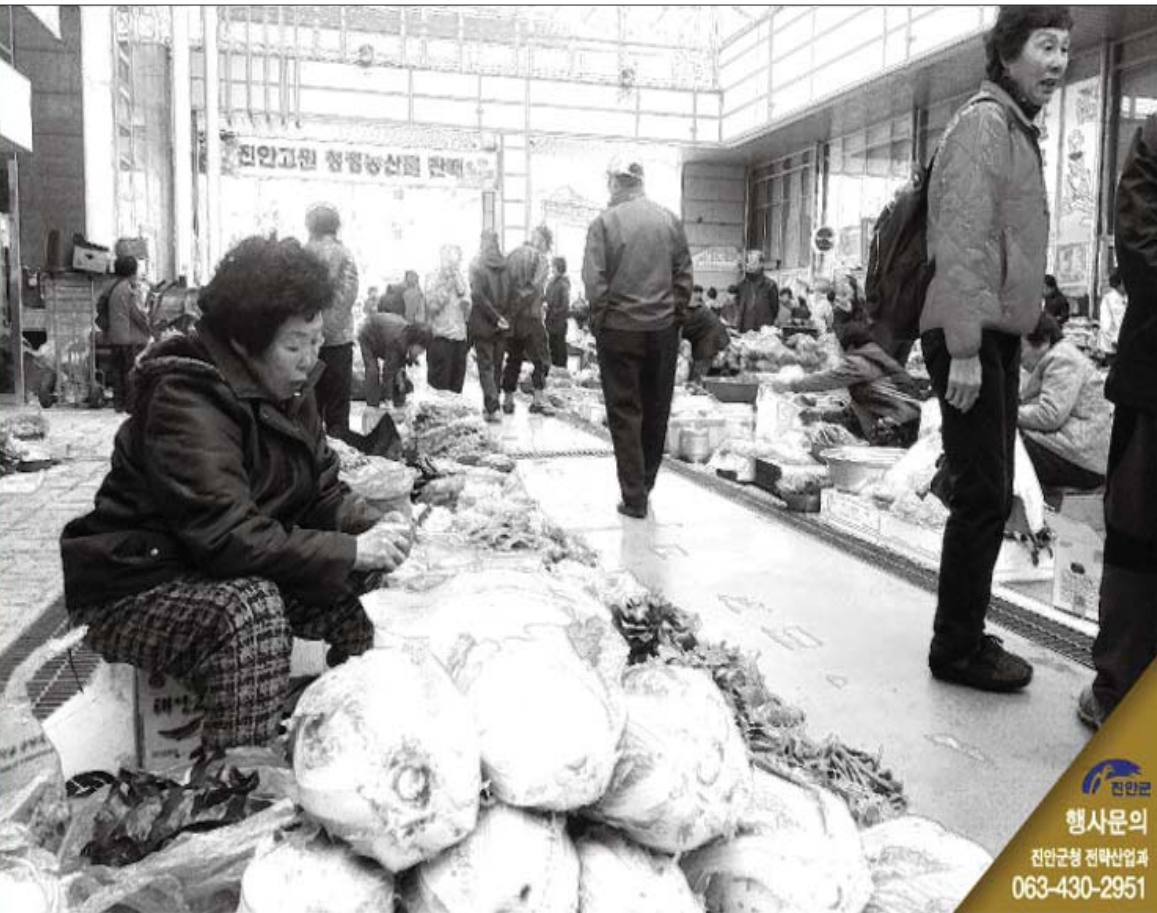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

▶ 지역 기관장 신년사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장수로

최용득 장수군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정유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론직필로 민의를 대변하는 지면에서 장수군을 소개하고, 새해에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장수 군민들과 도민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장수군은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장수'를 군정지표로 삼고 사람과 자연, 모두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장수, 군민이 행복한 장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유년 새해를 맞아 6차 산업활성화와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수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금보다 살기 좋은 장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논개정신을 되살려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과 감동이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 그리고 고른 복지정책으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농촌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장수가 될 수 있도록 힘차게 뛰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2017년에도 더욱더 장수군에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다시 한 번 도민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완주 으뜸상품권, 할인판매율 5% 인상

올해부터 완주 으뜸상품권의 할인 판매율이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과 동일한 5%로 인상된다.

완주군은 2017년부터 완주 으뜸상품권의 할인율을 3%에서 5%로 인상해 유통한다고 지난해 12월 29일 밝혔다.

완주 으뜸상품권은 완주군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화폐로서, 장기적이고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한 완주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부터 유통해온 완주 으뜸상품

권은 완주군 내 전통시장은 물론, 가맹만 하면 어떤 업종의 점포든 취급 가능해 가맹점이 1000개를 넘어섰다.

상품권에 대한 군민들 인식도 개선돼 지역경제를 위해 동참하시는 분위기가 확산 중이다.

이에 완주군은 이런 주민 관심과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할인판매율을 인상, 완주 으뜸상품권을 정상 제도에 올려놓는다는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장애인회관 개관식

진안군은 지난해 12월 29일 진안 장애인복지 허브화의 기틀이 될 진안군 장애인회관(구 전매서)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이항로 군수, 박명석 군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컷팅, 사무실 라운딩, 감사패 증정, 경과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진안군장애인회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기존 건물(연면적 595.34㎡)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것으로 장애인회관 1층에는 장애인 4개 단체(꿈드래, 시각, 농아, 지체) 사무실과 휴게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2층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소회의실과 대회의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항로 군수는 "장애인회관이 다양한 생각들이 모이고, 재해석되는 복지 허브화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특별블로그

장수군, 체납세 266억 징수

2016년도 장수군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11월말기준 283억원을 부과해 266억원(징수율 94%)을 징수, 연 목표액인 230억보다 16% 증가한 36억원을 더 징수했고, 체납액은 15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억원이나 감소했다.

이러한 징수 노력의 대가로 행정자치부 주관 세입확충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지방교부세 29억원을 확보, 전라북도 주관 2016년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최우수군, 2016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 선정과 2016년 4/4분기 최우수 체납세 징수왕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러한 성과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조례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으로 징수방법을 다양화 했고, 채권압류에 중점을 둔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9억원을 징수하는 등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에 따른 것이다.

최훈식 재무과장은 "올해에도 신규 세입 발굴, 누락세입 방지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 만경강포럼 개최

전북의 젓줄인 만경강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된 가운데, 완주군이 향후 가치사업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완주군은 최근 군 문화강좌실에서 관계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만경강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개최한 만경강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에 채택된 14건의 아이디어 발표회와 시상식을 가졌다.

최우수상은 ▲술포피어완주 생태숲 아카데미를 제안한 전라북도순태생태연구소가 협회 한정혜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만경강 물수제비대회를 제안한 우석대학교 강해나, 신진수 학생 동아리 ▲만경강 옛날옛적 구술지원을 제안한 염수련, 김중원 동아리가 받았다.

또한 독창적인 아이디어상으로는 ▲만경강 프로젝트 ▲호남지킴관문 만파관 복원 ▲일제 쌀수탈 다크투어리즘 등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상작으로 선정된 술포피어완주 생태숲아카데미는 3대 분야, 7개 사업을 제안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유해공 동식물과 함께 놀자'는 시책으로 잠자리학교, 맹꽁이 합창단, 물고기 탐험대 3가지 초·중·고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두 번째로 '만경강 유해식물 물러가라'는 시책으로 만경강 유해식물 제거와 어린이 배스 낚시대회를 제안했다.

세 번째로는 만경강 생태숲 해설 프로그램으로 천혜의 만경강 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 프로그램과 완주군 지역주민 생태해설가 양성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완주군은 이번에 제안된 아이디어를 심도있게 검토해 만경강 가치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도 3~6회 만경강 포럼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 시켜나기로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군, 공무원 정년·퇴임식 개최

장수군은 정년 및 명예퇴직 등 공직생활 마감에 축하하고 가족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하반기 공무원 퇴임행사를 열었다.

퇴임 공직자와 가족, 친지, 동료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장수군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데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아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 퇴임식에서 권오완 전 기획조정실장과 김동수 전 주민복지실장 등 총 6명이 정년 및 명예퇴직을 했다.

최용득 군수는 이 자리에서 "군민중심의 행복장수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것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한 뒤 "퇴임 후에도 장수군정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